

# 코로나發 주총대란 현실화... TK기업 60% 일정 미정

대구경북 본사 상장사 105개사  
62개사 주총 일정도 못 정해  
대관한 행사장 잇따라 취소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상장사 다수가 아직 주총 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대관한 주총장소도 잇따라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이달 내 주총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 본사를 둔 12월 결산법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05개사 중 이날까지 주총 일정을 정해 공시한 기업은 43개사(41.0%)에 그쳤다. 나머지 62개사는 주총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상 12월 결산 기업은 이달 안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총 개최 2주 전에 주총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주까지 주총 소집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대구 지

**정정신고(보고)**  
2020년 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2월 21일

3.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건	정정후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개최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추가	-	1. 일시 : 2020년 3월 20일(금) 오전 9시 2. 장소 : 삼성중공업 판교 R&D센터 2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7번길 23)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 제 1호 의안 : 제 46기(2019.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조현욱) -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최강석) - 제 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삼성중공업은 지난 27일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장소 변경을 알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역 기업들이 주총 행사를 대관하려는 데 해당 장소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와 영업을 중지하는 등 대관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한 내 사업 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기업의 행정적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

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중국에 사업장을 둔 소속사 상대로 조사한 결과 코스피 15개사, 코스닥 60개사 등 75개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등 사업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구·경북 지역 상장사들

지 더하면 사업보고서 등 제출을 연기하려는 기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등 지연 제출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부터 제출 연기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붐몰 터지듯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주총 장소를 잡는 것도 난항이다. 외부 대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주총을 여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코스닥협회 등은 자사 시설을 활용해 주총을 여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회사 내부에서 주총을 여는 것에 대한 불안도 크다. 자칫 사업장이 마비될 수도 있어서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현대차, 현대모터 등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주총을 가급적 사내에서 안 하려는 추세”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등 외부 장소도 코로나19로 대관을 많이 중단하고 있어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과 에스원은 대관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부랴부랴 주총 장소를

변경했다. 또 삼성중공업, 예시콘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가 대관을 중단키로 하면서 새로운 주총 장소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다행히 삼성중공업은 주총장을 급하게 자사의 판교R&D센터로 바꿨다.

또 대구가 본사인 푸드웰을 비롯해 삼성스팩2호, 삼성머스트스팩3호, 유안타제4호스팩 등이 당초 자사 사무실 등지에서 주총을 열려다 외부 장소로 옮겼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총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주총에서는 사업보고서 승인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등 임원을 선임해야 하고 배당 등 결정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대한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업장 내 주총장을 방문해 사업장 폐쇄로 이어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들은 전자투표·서면투표나 전자위임장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팔라듐이 뒤흔들... 안전자산 강세 속 ETF 수익률 1위

금처럼 달러 가치와 반대로 평가  
위험등급 ‘매우 높음’ 명심해야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팔라듐으로 향하고 있다. 팔라듐 현물 가격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팔라듐선물지수(S&P GSCI Palladium Excess Return InDex)에 투자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금에 이어 또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팔라듐은 백색금을 띄는 산업재로 가솔린 차량의 매연을 정화하는 촉매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

최근 팔라듐 ETF는 화려한 수익률을 뽑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이 내놓은 ‘KB STAR



팔라듐. /로이터 연합뉴스

팔라듐선물(H)’는 2월 수익률 21.20%를 기록하며 국내 ETF 상품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24일 상장 이후로 범위를 넓혀도 총 수익률(67.33%) 1위다. 같은 기간 21.20%를 기록하며 수익률 2위 자리를 차지한 ‘KODEX 심천ChiNex(합성)’의 세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거래가격도 상장 첫날(이하 증가기준) 1

만10원에서 지난 28일 1만6750원까지 67.33% 뛰었다.

반면 ‘KBSTAR 팔라듐선물인버스(H)’는 상장 이후 -40.8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이 기간 ETF 상품 중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다. 인버스 ETF는 기초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률을 깎아먹는 구조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최근 인버스 ETF 상품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팔라듐만은 예외였다. 팔라듐선물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ETF는 이 두 상품뿐이다.

팔라듐은 금값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용거래소에서 팔라듐 현물가격은 온스당 2616.55달러에 마감했다. 같은 날 1585.69달러에 마감한 금 현물 가격보다 높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금마저 현금화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실물자산의 가격도 내려가는 추세지만 아직까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시장에서 팔라듐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팔라듐 펀드 수익 역시 마찬가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탓이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 팔라듐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에 문제가 생겨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피해복구를 위한 정책 대응 역시 팔라듐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소현 연구원은 “재정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1등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팔라듐에 대해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값과 달리 가격변동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선 위험자산”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거나 선물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률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 LH, 코로나19 대응 건설현장 지원 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LH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인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공사중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LH는 보다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하고 건설현장에 전달하며 건설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LH의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

## 금투협 총회 연기... 이사회 임원 공석 사태

메자닌 투자확대 지연 등 업무차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비상근무 회장 등 이사회 임원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됐다. 이사회 임원은 현직에서 금융투자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다. 금투협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1일 금투협에 따르면 협회는 당초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비상근무 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기된 총회를 언제 개최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투협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길어질 경우 총회를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비상근무 회장 뿐만 아니라 지난달 25일 임기가 끝나 금투협 이사회 임원들의 후임을 선임해야 했다. 총회가 연기되면서 인사 공백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된 이들은 부회장인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회원이사인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공익이사인 김영과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 모두 비상근직이다.

부회장은 금투협 정관상 유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다. 지난해 권용원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최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또 금투협은 매주 열린 업권별 회원사 사장단 회의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협

회 건물 3층 불스홀과 강의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시설 대관을 오는 2일부터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금투협 회원사들의 회의가 중단되면서 증권사들이 추진하는 투자 확대도 지연되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건전한 기업의 메자닌에 투자할 예산을 총 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결정할 실무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손영지 기자